

국정뉴스

문 대통령, 등교개학 준비 현장 방문

생활방역 속에서 심리적 방역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8일 서울 용산구 중경고를 찾아 학교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방역'을 각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생활방역이라는 말이 애매하다고 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는데 조마조마하다. 등교개학을 가장 뒷순위로 미뤘던 이유도 그렇다. 그러나 교육 당국, 방역 당국, 학교, 학부모 모두 긴장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될 거라고 자신을 가지고 싶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펜탈마스크 문제, 예체능계 실기 실습 문제 등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란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정책 마련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오전 11시부터 12시3분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위커힐 호텔에서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노사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호텔업 현장을 찾아 업계 현황 및 고용유지 노력 등을 청취하고, 노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기국면 초기에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고용과 안전 등 제반 지원책 관련 제도 개선 사항들이 논의됐다.

주주

한국자유총연맹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48

◆시·도지부 연락처

- 서울 (02) 849-7871
- 부산 (051) 808-7960
- 대구 (053) 621-9880
- 인천 (032) 868-0113
- 광주 (062) 672-5004
- 대전 (042) 242-7601
- 울산 (052) 276-4400
- 세종 (044) 865-4522
- 경기 (031) 235-6166
- 강원 (033) 254-6670
- 충북 (043) 253-7770
- 충남 (041) 881-6045
- 전북 (063) 252-1797
- 전남 (062) 654-2340
- 경북 (054) 973-6312
- 경남 (055) 282-2332
-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有備無患의 자세로 안보의식 가다듬어야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특전사령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국민의 저력으로 극복해 온 것이 우리 민족이다.

사실 이번 감염병 사태가 처음은 아니다. 2002년 겨울 중국에서 시작된 이래 수개월 만에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 전염병 사스(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였다.

약 7개월 동안 32개국에서 8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774명이 사망했으나 우리나라는 55일간의

방역과 출입국 관리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두 번째 위기는 2009년 소위 '신종플루'라고 불리는 H1N1 바이러스로 2009년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70만 명이 감염됐다. 전 세계적으로 214개국에서 창궐했으며 18,400명이 생명을 잃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63

했으며 186명이 감염되어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외에도 조류독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우리 축산산업에 대한 위협은 계속돼 왔다. 이러한 위협과 경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과 질병관리체계, 그리고 공공의료 및 민간병원 등 의료구조 전반의 근력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 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또 있다. 바로 자연재해와 전쟁이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며, 오로지 준비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전쟁은 막을 수 있다. 즉 전쟁에 대비해 국민이 안보의식을 튼튼히 하고 군사를 유지하며 훈련을 잘 시키면 전쟁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미리 준비(準備)가 되어 있으면 우환(憂患)을 당(當)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말이다. 성숙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안보에 대한 지나친 걱정만 하지 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스스로 안보의식을 가다듬어야 한다.

감염병과 재해 막을 수 없어도 전쟁은 막을 수 있어 희생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함과 사회적 합의 필요

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 번째 위기는 2015년에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인 메르스의 발병이었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2년에 처음 발병해 주변 25개국에서 1,167명이 감염되어 479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는 중동을 다녀 온 우리 국민이 국내로 유입시켜 38일간 유행

족, 최초 상황인식의 오류, 그리고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로 인해 초기 대응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 심리상 자연스러운 것이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팬데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러한 전염병과 같이 우리의 안전과